

# 陰德其猶耳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쌓은 덕 '결실'

〈음덕기유이명〉

유천보그린 박인엽 대표는 선친에게서 배운 陰德其猶耳鳴(음덕기유이명) - 보이지 않는 곳에서 쌓은 덕은 그 귀에서 우는 소리와 같다 라는 말이 평생 좌우명으로 새기며 살아왔다.

박인엽 대표는 부안 동진면 출생으로 젊어서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쌀의 소중함을 알고 살았다. 옛날에는 가난한 시절이라 배고픔을 겪고 살았기때문에 지금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쌀을 후원하고 있다. 이에 본보에서는 (유)천보그린 박인엽 대표를 만났다.

### ▲전주시 노인의장 수상 소감은?

상을 받으러 선행을 한 것은 아년때 남을 위해 봉사 하다 보니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 더욱 더 노인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작은 힘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 하고 싶다.

### ▲사회에 봉사하고 헌신으로 소중한 상을 수상 했는데 어떤 공적이 인정돼 수상하게 되셨습니까?

31년간 긴 세월 동안 봉사활동을 해 왔지만 언제나 드러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행을 베풀었다.

암환자 돕기와 수술비 지원 등 선행이 돌아 가신 어머니를 위한 '효'라고 생각하며 실천해 왔다.

### ▲남 몰래 선행을 했는데 어떠한 일을 했나요?

초년에 부안에서 농사를 지으며 쌀의 소중함을 너무나 잘 알고 살았다.

유년시절부터 배고픔을 겪어 살아왔기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배고픔의 설움을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다. 어머니는 66세에 작고 하셨다. 그 당시 어머니 친구분들이 16분이 계셨는데 그때부터 16분에게 후원을 시작했다. 지금은 어머니 친구분들이 2명만 생존해 계시고, 다 돌아가셨다.

또한 명절이면 2번씩 쌀을 병원마다 10여포대씩 떡을 만들어 드리고, 독거노인 홀로 계신 어머니와 같은 분들에게 30여년동안 쌀을 손수 배달해 드렸다.

1년이면 300포대(쌀, 추석 20kg)를 후원 하는데 어머니 그리움 마음에 독거노인들을 보면

어머님 생각에 마음이 행복해진다. 이 뿐만 아니라 어버이날 금일봉도 전했다. 66세에 16명에게 어머니 친구분들에게 해오다 이제는 2명 남았다.

국제 로타리 클럽에서 30여년 정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평소 가지고 있는 신념이 있다면?

선친에게서 배운 陰德其猶耳鳴(음덕기유이명)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쌓은 덕은 그 귀에서 우는 소리와 같다'라는 말이 저의 평생 좌우명으로 새기며 살아왔다.

또 하나는 德不孤必有隣(덕불고필유인)이다. '덕이 있는 자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는 말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꼭 실천해 나가야겠다고 다짐한 부분이다.

### ▲(유)천보그린 회사는 언제부터 운영 하셨나요?

1994년부터 보건복지부에 감염성폐기물 운반 허가를 받으면서 시작해 지금에 유한회사 천보그린 사육신축이전까지 했다.

### ▲대표님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나요?

우리 사회에서 보탬이 될 수 있는 한 일의 씨가 되어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 한다.

살아가면서 조그마한 정성이 필요한 곳이면 돕고 싶다. 독거노인 등 어렵고 힘들어 하는 소년 소녀 가정들에게도 도움을 주며 살고 싶다. /장은성 기자



지난 4일 열린 전주시 노인의 날 기념식 유한회사 천보그린 박인엽 대표 수상 모습.



더욱 더 노인복지 관심 갖고 작은 힘이라도 보탬 되고파

'덕이 있는 자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는 말 사회생활 하면서 꼭 실천해 나가야겠다고 다짐한 부분

전주시 노인의장 수상을 받은 박인엽 유천보그린 대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전주시 노인의 날 행사.



(유)천보그린 전경